



정철, 성산별곡

정철의 가사 '성별곡'에 대한 해석과 분석이다.

그의 다른 가사 이틀테면 '사미인곡'이나 '속미인곡'에 비해 어렵다.

문학적 기교 역시 만만치 않다.

주의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2024 수능특강에도 수록되어 있다.

지은이와 작품 배경

'성산별곡'에서의 '성산'은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지곡리에 있는 지명이다. 정철이 25세 이후에 당쟁으로 정계를 물러나 이곳에서 은둔해 있을 때 김성원(金成遠)을 위하여 이 작품을 지었

다고 전해진다.

작품 분석

옛던 디날 손이 屋山(성산)의 머물며서

어떤 지나는 나그네가 성산에 머물면서

나그네는 시적 화자이다.

棲霞堂(서하당) 息影亭(식영정) 主人(주인)아 내 말 듯소

서하당 식영정 주인아 내 말을 들으시오.

서하당과 식영정은 정자의 이름으로 지금도 있다.

서하당 식영정 주인은 실존했던 인물로 김성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人生(인생) 世間(세간)의 도흔 일 하건마는

속세에는 좋은 일도 많은데

'좋은 일'이란 부귀공명을 의미한다.

옛디한 江山(강산)을 가디록 나이 녀겨

어찌하여 강산을 갈수록 좋아하여

'강산'은 앞의 '인생 세간'과 대조적이다. 속세와 단절된 탈속적 공간이다.

寂寞(적막) 山中(산중)의 들고 아니 나시난고

적막한 산중에 들어 와 아니 나오시는가.

청자를 '서하당 식영정 주인', 즉 김성원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말을 주고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화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말을 건네는 어투라고 해야 한다.

松根(송근)을 다시 쏘고 竹床(죽상)의 자리 보아

송근을 다시 쏘고 죽상에 자리 보아

'송근' : 소나무 뿌리

'죽상' : 대나무로 만든 평상.

저근덧 올라안자 었던고 다시 보니

잠시 올라 앉아 [주변이] 어떤가 다시 보니

'저근덧'이라는 어휘는 자주 나오는 어휘이니 익혀 두어야 한다.

天邊(천변)의 몇난 구름 瑞石(서석)을 집을 사마

하늘가에 떠 있는 구름이 서석을 집을 삼아.

'서석' : 산 정상에 있는 바위이다. 여기에서 산은 오늘날의 무등산이다.

'서석을 집을 삼아' : 구름이 서석에 늘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나는 드난 양이 主人(주인)과 었디한고

나오는 듯 들어가는 모습이 주인과 [비교하여] 어떠한가.

자연에 은둔한 채 유유자적하는 김성원의 모습이 구름과 같다는 의미이다.

주인에 대한 예찬이다.

설의적 제시이다.

滄溪(창계) 흰 물결이 亭子(정자) 알패 둘러시니

푸른 시내의 흰 물결이 정자 앞에 둘러 있으니,

시각적 이미지, 특히 색채어의 사용이 돋보인다.

天孫雲錦(천손운금)을 뉘라서 버혀 내어

하늘의 은하수를 누가 베어 내어

'천손운금'은 은하수로서 위에서의 창계, 즉 시내를 비유한다.

은유적 제시라고 할 수 있다.

넋난 듯 퍼티난 듯 헌사토 헌사할샤

이어 놓은 듯, 펼쳐 놓은 듯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山中(산중)의 冊曆(책력) 엽서 四時(사시)를 모르더니

산 속에 달력이 없어서 사계절을 모르더니

산중은 탈속적 세계이고 책력, 즉 달력은 세속적 성격의 것이다. 따라서 책력은 당연히 없다.

눈 아래 헤틴 景(경)이 철철이 절노 나니
눈 아래 펼쳐진 경치가 철을 따라 절로 생겨나니,

듯거니 보거니 일마다 仙間(선간)이라
듣거니 보거니 모든 것이 신선이 사는 세상이로다.

‘철을 따라 절로 생겨나니’, ‘듣거니 보거니’ : 앞으로의 내용 전개가 계절의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梅窓(매창) 아적 벼데 香氣(향기)에 잠을 깨니
매창 아침별의 매화 향기에 잠을 깨니,
봄을 나타낸다.

‘매창’은 매화나무가 있는 쪽으로 향해 있는 창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하다.

후각적 이미지의 사용. 여기에서 ‘매화 향기’는 임금에 대한 충절과는 관계없이 봄을 나타내는 소재일 뿐이다.

山翁(산옹)의 하울 일이 곳 업도 아니하다
산중 늙은이가 해야 할 일이 전혀 없지 아니하다.

을 밋 陽地(양지) 편의 외씨를 뿌려 두고
울타리 밑 양지 쪽에 오이씨를 뿌려 두고,

매거니 도도거니 빗김의 달화 내니 김을 매거니
김을 매거니 [흙을] 복돋거니, 비 온 김에 가꾸어 내니,

靑門 故事(청문고사)를 이제도 잇다 할다
청문고사가 지금도 있다 하겠구나.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여 산중 생활의 정취를 드러내고 있다.

芒鞋(망혜)를 뵈야 신고 竹杖(죽장)을 훑더디니
짚신을 조여 신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어

桃花(도화) 핀 시내 길히 芳草洲(방초주)의 니어세라.
복숭아꽃이 핀 시냇길이 방초주에 이어 있다.

‘방초주’는 꽃풀들이 피어 난 ‘주’인데, ‘주’는 모래나 흙 등이 퇴적되어 물 위로 드러난 땅이다.
시적 화가가 복숭아 꽃이 핀 시냇길을 거쳐 방초주까지 걸었다는 의미이다.

닷붓근 明鏡(명경) 中(중) 절로 그린 石屏風(석병풍)

잘 닦은 거울 속에 저절로 그려진 돌병풍

'잘 닦은 거울'은 잔잔한 물이다. 거울처럼 비쳐 보이므로 明鏡止水(명경止水)라고도 한다.

'절로 그려진 돌병풍'이란 그 물에 병풍바위가 비쳐 있다는 뜻이다.

그림자를 버들 사마 西河(서하)로 함께 가니

[병풍바위의] 그림자를 벗 삼아 서쪽 시내로 함께 가니,

桃源(도원)은 어드메오 武陵(무릉)이 여기로다.

무릉도원이 어디인가, 여기가 바로 그곳이로다.

무릉도원의 고사를 이용하여 아름다운 정취를 드러내고 있다.

南風(남풍)이 건듯 부러 綠陰(녹음)을 헤터 내니

남풍이 문득 불어 녹음을 헤쳐 내니,

'남풍'은 여름 바람이다. 참고로 동풍은 봄, 서풍은 가을이다.

節(절) 아는 피꼬리는 어드러서 오뚝던고

철을 아는 피꼬리는 어디에서 온단 말인가.

'절(節)'은 계절로도 해석되지만, 절개라고 할 수도 있다. 피꼬리는 철새인데, 철이 되면 어김없이 날 아든다는 특성 때문에 절개를 표상하기도 했다.

설의적 제시에는 감탄의 정서가 내포되어 있다.

羲皇(희황) 벼개 우희 꽃잠을 얼핏 깨니

희황 벼개 위에 선잠을 얼핏 깨니,

중국 신화시대의 제왕인 '복희씨(伏羲氏)' 때의 태평성대를 의미한다. 태평성대의 표상이다.

空中(공중) 저즌 欄干(난간) 물 우희 떠 잇고야

공중의 젖은 난간 물 위에 떠 있구나.

하늘을 배경으로 물에 비친 정자의 난간이다. 물에 비쳐 있기 때문에 젖었다고 표현한 것이다.

麻衣(마의)를 니미 차고 葛巾(갈건)을 기우 쓰고

베옷을 여며 입고 갈건을 비껴 쓰고,

'갈건' : 베로 만든 두건이다. 마의와 갈건은 소박한 차림을 의미한다.

구브락 비기락 보는 거시 고기로다 - 허리를 굽혔다가 비겼다가 보는 것이 고기로다.



하루밤 비기운의 紅白蓮(홍백련)이 섰거 피니
하룻밤 비 온 뒤에 붉은 연꽃과 흰 연꽃이 섞어 피니,

바람기 업시서 萬山(만산)이 향기로다
바람기가 없어서 모든 산이 향기로 가득하구나.

療溪(염계)를 마조보와 太極(태극)을 못잡는 듯
염계를 마주하여 태극성을 묻는 듯,

太乙真人(태을진인)이 玉字(옥자)를 헤췄난 듯
태을진인이 구슬 옥자를 헤쳐 놓은 듯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여, 연꽃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구태여 이런 고사를 인용한 내용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직유적, 대구적 표현이라는 점만 확인하면 충분할 것이다.

鷗鷺巖(노자암) 건너보며 紫微灘(자미탄) 겨태 두고
노자암을 건너보며 자미탄을 곁에 두고,
'노자암'은 바위의 이름을 운치 있게, '자미탄'은 시내의 이름을 운치 있게 표현한 것이다.

長松(장송)을 遮日(차일)사마 石逕(석경)의 안자스니
큰 소나무를 차일 삼아 돌길에 앉아 있으니,
'차일' :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치는 포장.

人間(인간) 六月(유월)이 여기는 三秋(삼추)로다
속세의 유월이 여기는 가을이로구나.
유월은 여름이다.

淸江(청강)의 몇난 올히 白沙(백사)의 올마 안자
맑은 강에 떠 있는 오리가 흰 모래에 옮겨 앉아,

白鷗(백구)를 벗을 삼고 잠꼰 줄 모르나니
흰 갈매기를 벗 삼아 잠꼰 줄을 모르나니,
배구, 즉 흰 갈매기는 무심(無心)의 표상이다. 고전시가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재이다.

無心(무심)코 閑暇(한가)하미 主人(주인)과 엇디하니
무심하고 한가함이 주인과 비교하여 어떤가.

마치 주인의 모습과 같다는 것으로, 실은 주인에 대한 예찬이다.
설의적 제시이다.

梧桐(오동) 서리달이 四更(사경)의 도다 오니
오동나무 사이로 가을달이 사경에 돌아오니,
'사경'은 깊은 밤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하다.
'서리달' : 가을임을 나타낸다.

千巖萬壑(천암만학)이 나진들 그러할가
천암만학이 낮인들 그러할까.
천암만학이 달빛에 낮보다 더 환하다는 의미이다. 과장적이다.
설의적 제시이다.
'천암만학' : 수 많은 봉우리와 골짜기. 만학천봉(萬壑千峰).

湖洲(호주) 水晶宮(수정궁)을 뉘라서 옮겨 온고
호주의 수정궁을 누가 옮겨 왔는가.
'호주 수정궁' : 중국 문학에서 빌려 온 표현이다.

달빛이 비친 아름다운 정경을 예찬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면 충분하다.

銀河(은하)수 띄어 건너 廣寒殿(광한전)의 올랐난 듯

은하수를 띄어 건너 광한전에 올라 있는 듯.

'광한전' : 달에 있다는 궁전이다. 예찬적. 비유적.

작 미즌 늘근 술란 釣臺(조대)에 세워 두고

한 쌍의 늙은 소나무를 조대에 세워 놓고,

조대 : 낚시하는 곳이란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물가라고 이해하면 된다.

'세워 두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 쌍의 소나무가 거기에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 아래 배를 띄워 갈 대로 디더 두니

그 아래에 배를 띄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니,

紅蓼花(홍료화) 白蘋洲(백빈주) 어느 사이 다나판대

홍료화 백빈주를 어느 사이에 지났길래.

'홍료화 백빈주' : 홍료화와 백빈이 피어 있는 '주'.

'주'에 대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풀이를 참고하면 된다.

環壁堂(환벽당) 龍(용)이 소히 배머리에 다하세라

환벽당 용소가 배머리에 닿았구나.

'환벽당' : 정자의 이름.

'용이 소' : 용소. 흔히 용이 그 안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용소라고 한다. 못과 호수 사이의 규모이다.

淸江(청강) 綠草邊(녹초변)의 쇼 머기는 아해들이

푸른 풀이 우거진 강변에서 쇼 먹이는 아이들이,

夕陽(석양)의 어워 계워 短笛(단적)을 빗기 부니

석양에 흥을 못 이겨 피리를 비껴 부니,

'빗기' : 꼭 '비스듬하게라'는 의미는 아니다. '멋지게'라는 뜻이 강하다.

물 아래 잠긴 龍(용)이 잠 깨야 내려날 듯

물 아래 잠긴 용이 잠을 깨어 일어날 듯,

내끼에 나온 鶴(학)이 제 기살 더더 두고 半空(반공)의 소소 뜰 듯

안개 기운에 나온 학이 제 집을 버려 두고 공중에 솟아 뜰 듯.

앞의 구절과 대구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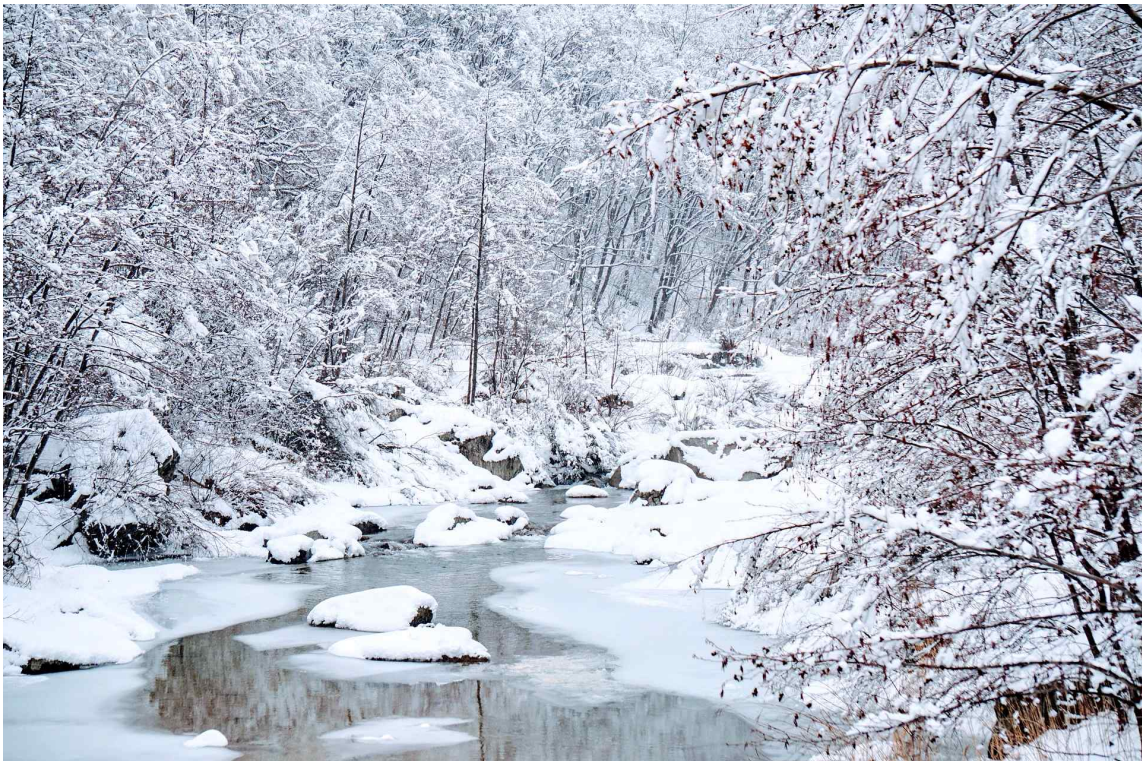
蘇仙(소선) 赤壁(적벽)은 秋七月(추칠월)이 도타 호대
소동파의 적벽부에서는 칠월이 좋다 하였으되,

八月(팔월) 十五夜(십오야)를 모다 었디 과하는고
팔월 보름밤을 모두 어찌 칭찬할까.

纖雲(섬운)이 四捲(사권)하고 물결이 채 잔 적의
잔구름이 흩어지고 물결도 잔잔할 때에,

하늘의 도단 달이 술 우희 걸려거니
하늘에 돋은 달이 소나무 위에 걸렸으니,

잡다가 빠딘 줄이 謫仙(적선)이 현사할샤
달을 잡으려다 물에 빠졌다는 이태백이 야단스럽다.
그 정경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의미로 새겨진다.



空山(공산)의 싸힌 님홀 朔風(삭풍)이 거두 부러
적막한 산에 쌓인 낙엽을 북풍이 건으며 불어,
'삭풍' : 겨울 바람이다.

때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모라오니
때구름을 거느리고 눈까지 몰아 오니,

天公(천공)이 호사로와 玉(옥)으로 고줄 지어
조물주가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만들어,

萬樹千林(만수천림)을 꾸며곰 낼세이고
은수풀을 꾸며 내었구나.

앞 여흘 가리 어러 獨木橋(독목교) 빗젖난대
앞 여울 모두 열고 외나무 다리 걸려 있는데,

막대 멘 늘근 중이 어느 덜로 간닷 말고
지팡이를 멘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인가.

山翁(산옹)의 이 富貴(부귀)를 남다려 헌사 마오
산중 늙은이의 이 부귀를 남에게 자랑하지 마오.

瓊瑤窟(경요굴) 隱世界(은세계)를 차자리 이실세라
경요굴 은세계를 찾을 이가 있을까 걱정이구나.

'경요굴' : 거울과 구슬로 장식한 굴이라는 의미. 설경을 비유한 표현.

'은세계' : 숨겨져 있는 곳. 바로 김성원이 은둔해 살고 있는 탈속적 공간을 의미한다.

山中(산중)의 벗이 업서 漢紀(한기)를 싸하 두고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 놓고,

萬古(만고) 人物(인물)을 거스리 헤쳐하니
만고의 인물들을 거슬러 헤아려 보니

聖賢(성현)도 만커니와 豪傑(호걸)도 하도 할샤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하날 삼기실 제 곳 無心(무심)한가마난
하늘이 세상을 만들 때에 어찌 무심했겠나만

엇디한 時運(시운)이 일락배락 하얏난고

어찌하여 운수의 흥망이 그토록 심했던가.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음도 그지업다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끝이 없다.

세속의 일들에는 흥망성쇠가 심하기에 덧없다는 정서의 표현이다.

여기에는 지은이 정철 자신이 겪었던 정치적 삶에 대한 고뇌가 반영되어 있다. 정치적 출세와 몰락을 적지 않게 겪었던 그였던 것이다.

箕山(기산)의 늘근 고블 귀는 었디 싯돏던고

기산의 늙은 고블 귀는 어찌 췌엇던가.

'고블'은 허유를 지칭한다.

박소리 핀계하고 조장이 가장 높다

소리가 난다는 핑계로 표주박을 버린 허유의 뜻이 대단하구나.

기산에 은둔해 살았다는 소부와 허유의 고사. 중요한 것은 그 둘 모두 세속적인 일체의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소부와 허유에 대해 예찬하고 있는 것은 세속의 무상함, 그 허망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人心(인심)이 낮 가타야 보도록 새롭거날

인심이 얼굴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세속의 인심이 야박하게 자주 바뀐다는 의미이다.

염량세대(炎涼世態), 감탄고토(甘呑苦吐).

자신의 정치적 출세와 몰락의 과정에서 그가 겪었던 세속의 인심에 대한 염증이 반영되어 있다.

世事(세사)는 구름이라 머흐도 머홀시고

세상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엇그제 비즌 술이 어도록 니건나니

엇그제 빛은 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잡거니 밀거니 슬카장 거후로니

술잔을 잡거니 권하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의 매친 시름 저그나 풀리나다

마음에 맺힌 시름이 조금이나마 떨어지는구나.

여기에서 '시름'이란 위에서 설명한, 정치적 부침과 그 가운데에서 느꼈던 세상 인심의 야박함에서 비

룻된 것이다.

거문고 시윽 언저 風入松(풍입송) 이야고야

거문고 줄을 얹어 풍입송을 타자꾸나.

'풍입'송 : 곡조의 이름이다.

손인동 主人(주인)인동 다 니저 바려서라

누가 나그네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도다.

손과 자신과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의미이다.

자신 역시도 이 자연에 완전히 동화된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長空(장공)의 몇난 鶴(학)이 이 골의 眞仙(진선)이라

공중에 떠 있는 학이 이 골의 진짜 선이라.

瑤臺(요대) 月下(월하)의 행혀 아니 만나신가

이전에 달 아래서 혹시 만나지 아니하였는가?

손이서 主人(주인)다려 닐오대 그대 권가 하노라

나그네가 주인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곧 진짜 신선인가 하노라.

주인과 손의 구별이 없어졌으니, 자신이 마치 신선이 된 듯하다는 정서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